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지도교수 박 정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송 금 숙

2006년 8월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지도교수 박 정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송금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 초록>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송 금 속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교육의 병리현상들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흡연 예방교육 활동은 아직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 과정 중 흡연 시작을 조기에 차단하는 흡연 예방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흡연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흡연 경험과 가정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흡연 경험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섯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에 소재한 8개 중학교 1, 2, 3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한 조사를 통해 1,48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중학생의 흡연 경험율은 12.8%, 일반적 특성의 6개 항목 중 학년, 성별,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지역별, 스트레스 정도, 한 달 용돈 액수 정도는 흡연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가정환경 6개 요인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계시는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는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일수록, 아버지만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흡연 경험이 많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 경제 생활수준과 부모의 흡연 영향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학교생활 환경의 8개 요인 중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에 흡연 충동을 느낄수록,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의 집에서 흡연이 많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하루에 학습하는 시간, 친한 친구 중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사회 환경의 3개 요인 중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거주지에 따른 흡연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주일간 유흥가에 출입 횟수가 많을수록,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멋있게 바라볼수록 흡연 경험은 많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성격 및 지역, 가정환경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요인 중 학교 성적과 교사와의 관계 및 교사의 흡연 모습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 요인 중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와 영화 · 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내 중학생의 흡연 경험은 흡연 관련 요인과 흡연 지식 간에 가정 환경 요인, 학교생활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경험이 높을수록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나는 상반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문제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며, 또한 교육정책 차원에서 흡연예방 시범 연구학교가 지정 · 운영되어야 하고, 각 학교 · 급별에 적합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 보급되어 정규 교육과정 속의 교과내용으로 실시하여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청소년기의 특징	4
2. 청소년 흡연의 특징	6
3. 청소년의 흡연 관련 요인	13
4.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정책	17
5. 흡연 지식	23
6. 선행 연구 고찰	24
III. 연구 방법	27
1. 연구 대상	27
2. 연구 도구	28
3. 연구 절차	29
4. 자료 처리	29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0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30
2. 흡연 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	35
3.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50
4.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61
IV. 요약 및 결론	62
1. 요약	62
2. 결론	64
참 고 문 헌	67
< Abstract >	71
< 부 록 >	73

표 목 차

<표 II-1> 중·고등학생의 흡연을 변화	8
<표 II-2>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흡연을	9
<표 II-3> 흡연 경험 유무	10
<표 II-4> 흡연 예방교육의 변천 과정	19
<표 II-5>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 예방교육 관련 법령	20
<표 III-1> 연구 대상자의 분포	27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표	28
<표 IV-1> 학년에 따른 흡연 경험	30
<표 IV-2>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	31
<표 IV-3> 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	32
<표 IV-4>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	33
<표 IV-5>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	34
<표 IV-6>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경험	35
<표 IV-7>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36
<표 IV-8> 가정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	37
<표 IV-9>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37
<표 IV-10>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	38
<표 IV-11>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39
<표 IV-12>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경험	40
<표 IV-13>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경험	41

<표 IV-14>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	42
<표 IV-15> 선생님과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43
<표 IV-16> 선생님의 흡연 모습에 따른 흡연 경험	44
<표 IV-17> 방과 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45
<표 IV-18>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46
<표 IV-19> 방과 후 주로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	46
<표 IV-20>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	47
<표 IV-21> 거주지에 따른 흡연 경험	48
<표 IV-22>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경험	49
<표 IV-23>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에 따른 흡연 경험	50
<표 IV-2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51
<표 IV-25>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53
<표 IV-26>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56
<표 IV-27>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59
<표 IV-28>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6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인지, 정의, 그리고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교육 환경은 그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가 경쟁 사회로 변하고 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실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의 병리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학교의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 문제 중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흡연 문제일 것이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 폭력, 절도와 같은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가 1988년 이후부터 2005년도까지 1~2년 간격으로 실시해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중학생 4.2%, 남자 고등학생 15.7%로 1988년에 비해 남자 중학생은 4.2배 증가하였지만, 남자 고등학생인 경우는 오히려 1.2배 감소하여 중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3.3%, 여자 고등학생은 6.5%로 1991년에 비해 여자 중학생은 2.8배,

여자 고등학생은 2.7배나 증가하여 여자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물론,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한 사회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

1979년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하면 법률상 성년이 되지 않는 자, 즉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꺾연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친권자의 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꺾연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주왕기, 1992).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연 시설을 신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청소년,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각급 학교에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외래 방문객은 물론 교직원, 학생은 교사(校舍)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흡연 예방교육 활동도 아직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보건교사, 보건업무 담당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 또는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적극적 대처 활동으로 흡연 시작을 조기에 차단하는 흡연 예방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흡연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생활지도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제주도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

고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정착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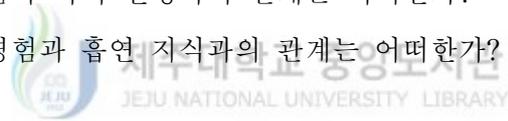
첫째, 중학생의 흡연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흡연 경험과 가정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흡연 경험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섯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출생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소년기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보는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기의 시작은 사춘기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사춘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장과 체중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성장 급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제2의 성징이 나타난다. 제2의 성징으로 남자는 몽정, 변성, 뼈와 근육의 발달, 가슴과 어깨의 확대, 체모의 발생, 여드름 등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여자는 초경, 골반 부위의 확대, 유방의 발달, 둔부의 확장, 체모의 발생, 지방층의 발달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성기관이 발달하여 생식 기능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하고 불균형적인 신체적, 생리적 변화는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특히 초경이나 몽정, 체모와 여드름의 발생은 수치심을 동반하게 되어 사회적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아상이나 타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도 변화를 가져와 고민과 고독에 빠지게 된다(송명자, 2000).

청소년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다. 청소년기에는 지적 능력이 최대로 발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수리 능력과 유

추 능력이 청소년기 후반에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Piaget²⁾는 지적능력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형식적 조작 사고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추론하는 명제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며 이를 상호 관련 짓고 통합하는 결합적 분석, 구체적 대상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형식 논리에 의해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형식적 조작기에 청소년들은 눈앞에 주어진 구체적인 사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원리를 찾으려 하며 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과 가능한 것, 즉 가설적인 것 사이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현실에 반항하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항상 가능성과 실제의 현실을 비교하여 현실의 가능성보다는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실에 반기를 들고 가능성의 세계, 즉 이상으로 치닫게 되기도 한다(이성진, 1994).

청소년기는 또한 도덕성의 발달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아동기의 절대적, 자기 중심적 도덕관에서 벗어나서 상대적, 타인 중심적 도덕관을 갖게 된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성인이나 부모보다는 동료집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동료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할 청소년기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역할을 이행하는 시기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늦어지고 반면에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은 빨라져서 전보다 일찍 사춘기로 접어드는 경향을 보여 청소년기가 이전보다 일찍 시작

2) Jean Piaget(1896~1980)는 근 60년에 걸쳐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는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하였으며 '발생적 인식론(genetic epistem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을 창조하였다. 인지적 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인지발달의 단계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전 단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수준에서 그것을 재구조화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해서 늦게 끝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의 역할이나 책임이 유보되는 시기가 길어지고 아울러 불안과 갈등의 시기도 길어지게 된다(최정훈, 1987).

2. 청소년 흡연의 특징

청소년기는 전 생애의 발달 차원에서 특유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시기로 이후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남자보다는 여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선하(2001)는 이처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집에서 아버지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담배를 피우며, TV에서 연예인들과 사회 지도층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 등 어느 곳에 있건 담배 피우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의 흡연을 말리는 부모, 선생님 그리고 어른이 전과는 달리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구입 제한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담배 광고는 청소년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유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화려한 성인 잡지나 경주용 차에 부착된 담배 광고를 보고 흡연은 멋있고 우아하며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넷째, 청소년의 흡연 시작은 흡연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 흡연 시작 동기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흡연 동기 중 가장 많은 이유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흡연은 생리적 욕구에서라기보다 심리적 작용에 의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성인에 대한 모방심리, 친구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른이 다 된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자기 과시욕, 호기심, 과도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친구와 어울리기 위한 방편, 사회적인 억압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명윤, 1998).

가. 청소년의 흡연 실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1988년부터 처음에는 매년, 그 후에는 2년마다 전국의 학교 및 학급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조사한 바 있다. 처음에는 남학생만을 조사했으나 1991년부터는 여학생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1) 흡연율의 변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변화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남자	1988	0.4	2.1	2.7	1.8	9.5	19.1	40.4	23.0
	1989	1.8	1.6	2.0	1.5	17.3	26.8	50.0	32.0
	1991	1.9	3.8	3.6	3.2	14.3	38.2	44.8	32.2
	1993	1.6	2.5	2.7	2.2	13.6	24.9	40.2	25.5
	1995	1.0	4.2	1.9	3.8	15.2	30.3	33.2	26.1
	1997	1.5	3.8	6.3	3.9	21.6	41.0	41.6	35.3
	1999	1.1	8.7	7.0	5.6	24.7	31.1	41.0	32.3
	2000	2.7	6.3	10.6	7.4	19.9	29.8	37.9	27.6
	2001	2.2	5.5	8.5	6.0	10.1	32.6	29.6	24.8
	2002	2.0	1.4	7.8	3.5	15.8	24.2	30.2	23.6
	2003	1.6	0.7	5.6	2.8	21.4	20.0	25.2	22.1
	2004	0.5	2.9	4.4	2.4	10.8	17.3	21.5	15.9
	2005	3.8	3.5	5.7	4.2	12.6	22.1	13.2	15.7
여자	1991	0.8	1.0	1.8	1.2	1.3	1.9	4.3	2.4
	1993	1.4	1.5	1.1	1.4	1.2	2.7	2.6	2.2
	1995	1.2	2.8	3.6	2.6	3.8	5.1	5.6	4.7
	1997	3.2	4.4	3.7	3.9	9.9	7.2	7.3	8.1
	1999	2.2	3.2	3.5	3.1	10.5	7.4	5.3	7.5
	2000	0.9	1.0	6.6	3.2	12.2	10.0	10.5	10.7
	2001	0.6	1.8	3.3	2.0	9.6	6.1	7.3	7.5
	2002	0.0	1.6	0.8	0.9	8.5	9.6	3.5	7.3
	2003	0.0	2.0	4.2	2.3	6.8	7.6	5.3	6.8
2004	2.1	1.3	1.7	1.7	9.2	8.5	4.9	7.5	
2005	2.9	2.7	3.5	3.3	5.2	8.1	5.9	6.5	

<표 II-1>에서와 같이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7.4%까지 증가하였다가 2004년 2.4%까지 감소한 후 2005년에 4.2%로 증가하였다.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이후 2% 내외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3.3%로 다소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1997년 35.3%까지 증가한 이후 2005년 현재 흡연 비율이 15.7%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2000년 10.7%까지 증가하였다가 약 2001년 이후 7% 내외 증가 기록을 보이고 있다.

2) 지역별 흡연율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흡연율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중·고등학생의 지역별 흡연율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농촌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남자	1988	2.3	0.8	22.5	27.5
	1989	1.5	1.6	25.8	42.7
	1991	2.9	3.6	28.8	42.7
	1993	2.5	3.6	24.6	29.0
	1995	5.7	3.3	24.6	29.0
	1997	3.0	5.7	32.3	46.3
	1999	5.7	7.4	32.1	35.9
	2000	5.6	6.6	32.0	26.4
	2001	6.6	5.0	23.9	21.6
	2002	6.5	1.9	28.0	19.8
	2003	2.4	3.0	29.6	16.4
	2004	1.8	2.8	23.0	13.3
	2005	2.5	4.0	17.3	14.6
	여자	1991	1.1	1.3	2.3
1993		1.4	1.9	2.2	2.5
1995		2.8	2.3	5.1	3.9
1997		2.7	5.8	9.2	6.0
1999		3.2	2.8	7.5	7.6
2000		4.3	8.6	9.9	10.7
2001		1.0	2.7	6.1	9.6
2002		0.0	1.6	8.3	7.1
2003		5.3	2.6	6.1	6.7
2004		0.8	2.0	5.0	7.6
2005	6.0	2.7	6.0	6.4	

<표 II-2>에서와 같이 2005년도 남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도시 지역 학생의 흡연율이 농촌지역 학생보다 각각 4.0%, 6.4%로 높았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 농촌지역 학생의 흡연율이 도시지역 학생의 흡연율보다 2.2배

가량 높았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도 농촌지역 학생의 흡연율이 도시지역 학생의 흡연율보다 높았다.

3) 흡연 경험 유무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5년도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흡연 경험 유무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흡연 경험 유무

단위 : 명 (%)

	남		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중	449(25.0)	1349(75.0)	310(15.0)	1755(85.0)
고	780(43.7)	1006(56.3)	496(24.9)	1494(75.1)

<표 II-3>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한 모금이라도 흡연을 시도해 보거나 경험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자 중학생은 25.0%, 남자 고등학생은 43.7%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자 중·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5.0%, 24.9%가 흡연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나.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은 상당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1980년대 학교 자율화의 영향에 따른 교복 및 두발 형태의 자유화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줄어들

고,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 및 관측의 영향, 무분별한 판매 등으로 흡연이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은 사회규범에서 청소년 범죄 및 마약과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비행으로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이 비행 행위보다 먼저 일어난다. 1989년 체육부에서 발간된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흡연은 음주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그 다음이 본드, 최면제, 대마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승구(199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97%(남), 39.3%(여)가 흡연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적 발육이 미완성 단계인 청소년들은 세포와 조직이 아직 연약한 상태이므로 흡연 연령이 낮을수록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흡연 폐해의 심각성으로 한 동안 사라져가던 폐결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사망 위험비가 18.7배에 달하고 15~19세 때 시작할 경우 14.4배, 25세 이상이면 5.2배로 점차 낮아진다. 따라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는 흡연량 뿐만 아니라 담배를 처음 피우는 연령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성인병을 조기에 발생시킨다. 더구나 가임기를 거칠 여학생의 흡연은 더욱 위험하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될 여성의 흡연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 기형아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흡연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청소년 흡연 유형 및 예방 대책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은 흡연 현상 자체를 문제 삼아 흡연을 중단시키는 것, 흡연하게 되는 저변에 깔려있는 성인 생활의 모방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 그리고 건전한 또래 집단의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개인에 대한 대책은 개인의 흡연 행동 수준에 따라 각각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오익수(1993)는 흡연 행동 수준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흡연 유형을 세 그룹(잠재 흡연 가능 그룹, 초기 흡연 그룹, 습관적 흡연 그룹)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흡연 예방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잠재 흡연 그룹은 현재 흡연을 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흡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직 흡연은 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흡연에 노출되어 있고 성인의 모방 욕구와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흡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다소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흡연이 주는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편이므로 잠재 흡연 그룹에 대한 지도는 흡연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둘째, 초기 흡연 그룹은 아직 니코틴에 중독되지 않았지만 또래와 어울리면서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 간헐적으로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흡연하는 또래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공부 등의 스트레스나 기성세대의 모방 욕구로 인하여, 한 두 개비를 피워 보았으나 아직 니코틴이 중독되지 않았으므로 금연하는 것이 쉬우며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지만 또래 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이 확인되면, 청소년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모나 교사가 적절한 개입을 하여 흡연 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위협보다 흡연 폐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스스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습관적 흡연 그룹은 니코틴에 중독되어 반복적으로 흡연을 계속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니코틴은 중독 후 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흡연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30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체외로 배출된다. 따라서 일단 니코틴에 중독되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흡연을 계속하게 된다.

흡연을 중단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 불안, 초조, 긴장, 의욕 상실증을 일으키므로 다소 금연의 의지가 있더라도 반사적, 자동적으로 흡연하게 되어 금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일단 청소년들에게 금연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인 금연치료가 필요하다. 습관적 흡연 청소년들에게 금연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5일 정도의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금연치료를 받은 후에도 많은 금연자들이 다시 흡연하게 되므로 체계적인 금연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상담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흡연은 청소년만의 문제이기 이전에 범국가적인 문제로 국가적, 사회적, 학교 교육 그리고 가정 교육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의 흡연 관련 요인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피우는 데에는 단일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상호 관련된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요인들은 개개인들에게 다양하게 작용한다.

양만우(1983)는 가정적인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으로 분류하고, 윤덕중(1984)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갖게 되는 원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급변한 사회 변화에 의한 자극과 압력, 교육의 부조화를 들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 요인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개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행과 흡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가정 환경 요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과 관계를 맺게 되며 또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습관을 익히고 사물에 대한 태도, 습관, 가치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가정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애정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청소년들은 사회의 압력과 유혹에 의해 범죄에 빠질 위험이 크다(김혜란, 1994).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흡연 행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헌들이 많이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행동함으로써 학습된다(Bandura, 1977).

김현수(1989)는 부모의 흡연 습관이 청소년 흡연 습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Spielberg(1983)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임태빈(1976), 심은희(1988) 등도 부모의 흡연과 청소년의 흡연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장영미(1991), 이계은(1992)은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간에 친밀성이 없고 의견 존중도가 떨어질수록 흡연 경험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유영식(1984)과 지인순(198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거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학생은 수용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학생보다 흡연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나. 학교생활 환경 요인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회의 생활양식과 규범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내면화되도록 교육을 시키며 사회에의 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정태훈, 1988). 이처럼 청소년기의 학교는 가정만큼이나 때로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장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바로 그들의 생활 자체이기도 한다.

민영순(1991)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규범,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고 학교생활의 조화와 만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진희숙(1994)은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이 크면 클수록 청소년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적 갈등이 커 흡연에 더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남재봉(1992)은 학업 성적이란 청소년 미래의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의 현재적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 특성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학업성적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비행 집단에 속해 있었다고 하였다. 장상희(1985)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있는 반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배를 쉽게 찾는다고 하였다.

진희숙(1994)은 중학생 1,383명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43.8%가 스트레스를 흡연 동기 중 1위로 꼽고 있어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건전하지 못한 흡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영빈(1995)은 방과 후 학습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생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성이(1989)는 숙제와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흡연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학습 시간이 흡연과 상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Bank(1981) 등의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친구들 대부분이 흡연을 하고 있으며 흡연을 하지 않으면 조롱당하며 흡연하는 친구와 있을 때 흡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친구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을 우정으로 생각하거나 그룹에 대한 확실한 소속감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 교우관계와 흡연 여부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영미(1991), 이영빈(1995) 등의 연구에서는 방과 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을 사회화시키고, 학습의 동기유발로 학문의 세계를 일깨워 주며, 새로운 가치의 전수와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등 매우 다양하다(임주영, 1984). 이처럼 교사는 학생들과 맺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 제도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입시 문제, 교육과정 문제, 과밀 학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장 과정의 학생들은 수없이 많은 요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상충되는 요구로 갈등을 빚게 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됨으로 결국 심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학교는 학업에 대한 기대감과 학교생활을 통한 만족감이 존재하여야 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하며 건전한 정신세계와 신체를 가꾸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 사회 환경 요인

매스미디어는 사회의 각 하부체제를 연결시키는 상호작용과 문화전승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 및 사회에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적 특성대로 많은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자신을 형성해 나아가므로 각종 대중매체와 광고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감정 및 생활양식에 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연순(1994)은 특히 TV, 영화 같은 매체에서 인기 연예인들의 흡연하는 장면, 담배 광고 선전 등 흡연을 조장하고 용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순남(1999)은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들은 드라마나 영화 속의 모델의 매력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쉽게 모델의 행동을 학습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거주환경을 보면 거대도시의 뒷거리는 청소년 유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강대운(1996)은 거주환경에 따른 흡연자 및 흡연 경험자는 유흥가 주변 40.9%, 단독 주택 35.9%, 시장·상가 지역 34.5%, 아파트 단지 27.1%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장영미(1991), 이은영(1992)의 유흥가 출입 횟수와 흡연율의 관련 연구에서는 유흥가 출입이 잦을 때 흡연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4.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정책

1992년 3월 31일 공포된 교육부 고시(제1992-11호)에서는 환경교육, 안전보건교육, 성교육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관련교과의 특별활동 영역에 반영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과 성교육 강

화를 체육교과에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공포된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학교장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를 넓히고 일선 학교 학생들의 요구도와 실정에 적합하도록 2개 이상의 선택과목을 동시 개설하게 하여 선택권을 높였다. 그렇지만 교육 입시제도에 늘려 이러한 학교장 재량과목의 활용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윤영옥, 1998).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흡연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 이르러 각 학교장은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당해 연도의 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체육 교과서에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실시하던 금연교육을 4학년부터 2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시작 연령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 중학교의 교과서에도 금연교육 내용을 강화시켜 금연교육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담배를 마약과 같은 중독성 약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이 내용을 초등학교 교사 연수 교재에 반영하여 생활지도를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약물교육을 강화하였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가. 흡연예방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1999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주로 보건교사, 학생부장 또는 일반교사 중 금연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금연상담, 금연교실,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나 대학교, 민간단체

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06). 흡연예방 교육의 주요 변천 과정을 요약한 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흡연예방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년 월 일	연 혁	관련 근거
2002. 1. 1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 법률	제6619호
2002. 2. 25.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2003. 4.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 흡연예방사업보조금 교부	
2004. 4. 19.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제2002-49호
2004. 1. 19.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흡연예방교육 강화'	
2004. 3. 1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74 '2004년 흡연예방 사업 보조금 예산 교부 결정 통지' (3천만원)	
2005. 1. 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728 '2005년도 금연사업비 및 주민건강증진 센터 운영비 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 (5천만원)	

나. 흡연 등 약물 오·남용 교육 관련 법령 목록 및 내용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을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의 교사(校舍)를 포함한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법령 목록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금연구역 설치 및 흡연 예방교육 관련 법령

관 련 법 규	내 용	비 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 법률	금연구역 설치	제6619호(2002.1.19.)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	금연구역 설치	제2002-49호(2002.4.19.)
국민건강증진법규칙개정령 공포	금연구역 설치	제2002-49호(2003.4.19.)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교과	

그리고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에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법 (1967. 3. 30. 법률 제1928호)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개정 2001.1.29, 2003.1.29)

다. 제주도교육청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운영 방향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보건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기본방향(2006)을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방침,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방침

최근 청소년 흡연 등 약물 오·남용이 저연령화·다양화·확산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비행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청소년 흡연 등 약물 오·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2) 현황

가) 초·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 개편으로 약물 관련 예방교육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교원 연수과정에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과목을 추가 시행한다.

나) 학교보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학교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 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청소년 흡연과 약물 남용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으로 더 이상 확산

되기 전에 학교에서 사전에 차단 대책을 마련한다.

라) 교원 연수기관의 흡연예방 등 약물 남용 예방 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이 미흡하다.

3) 추진 방향

가) 학생들의 음주·흡연 등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교육 시 활용하고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나)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의 정규수업을 통해 예방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학교장 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특별교육 강화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다) 교원 연수기관에서는 자격연수 등 교원 연수 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통하여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을 제고한다.

라) 청소년의 달 청소년 축제 시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체험행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금연 관심을 유도한다.

마) 흡연 예방교육실 설치 운영으로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며, 교수요원 및 금연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하다.

바) 교직원 금연운동 전개 및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를 절대금연 건물로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한다.

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하에 학생 약물 남용 예방 개발 프로그램을 학교 급별로 각 1교씩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시범 운영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자료는 공유(EDUNET활용)하며, 비만 및 약물 예방 프로그램 시범적용은 동일 학교에서 운영되고, 교육청 지정 흡연

예방 연구학교(한림중학교)를 운영한다.

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학부모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자) 학생 수련이나 단체 활동 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학교에서 상담실, 사랑의 편지함, 사랑의 전화 등 개설 운영, 교사와 약물 오·남용 학생간의 1교사 1학생의 결연 지도로 학생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 흡연 지식

흡연에 대한 지식이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말하며 흡연 행동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의 중요성은 행동의 변화에 있다. 두 변수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식의 제공이란 정보를 한번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작된 교과과정을 통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흡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롭게 이해하여 이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강화하고 수정하여 올바른 건강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흡연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1994)에서도 연구·이론 실무를 근거로 보건 및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소년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학교 단위 사업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정책의 개발 및 강화, 흡연이 인체에 미친 장·단기 영향의 교육과 저항 훈련 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걸친 흡연 예방교육 제공, 교사를 위한 훈련 제공, 부모와 가족의 참여

유발, 학생과 교사의 금연 지지, 정기적인 프로그램의 평가 등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황라일, 1998).

청소년 여학생 흡연 실태 연구에서 1988년 이래 흡연의 해악에 대한 지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90%이상 학생이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고(지선하, 2001) 흡연 학생일수록 비흡연 학생에 비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았으며 자신의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연운동에 대해서는 흡연 학생의 80.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경아·장주동, 2002).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경우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학생은 21.5%에 불과하며 흡연을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와 흡연에 대한 유해성을 경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의 해악을 경시하는 태도는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청소년에게 흡연 해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흡연 예방교육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흡연 행위를 감소시키며 금연 효과까지 가져오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최선의 교육이 될 것이다.

6. 선행 연구 고찰

흡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흡연 인구는 많이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여성의 흡연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흡연율 조사 결과는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흡연이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김선희(1997)의 연구에서는 흡연 학생 중 흡연 시작 시기가 초등학교 때가

37.6%로 가장 높았는데 공터에서 흡연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68.2%가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생활에 별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영희(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주로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흡연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었던 학생일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중간이거나 낮은 학생일수록 높은 학생에 비해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서일(1988) 등의 흡연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 중의 흡연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으며 자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현미(2002)의 흡연 실태 연구에서는 흡연 친구가 없는 학생보다 흡연하는 친구가 있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흡연 경험 여부는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이 74.5%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 25.5%보다 더 많았다. 남학생과 생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교생활에 불만족 하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은 더 많았다.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한 결과는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엄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흡연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영(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의 흡연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 여부와 관련은 있지만 확실한 결정적 관련 요인은 아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광옥 등(2000)의 연구에서도 흡연 경험이 있는 군(평균 11.1점) 보다 흡연 경험이 없는 군(평균 12.2점)이 흡연 지식 점수가 더 높았고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흡연 동기, 시작 시기, 성적, 교사의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적응도, 경제 수준, 흡연 지식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교 8개교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유층 표집 즉,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각각 2개교에서 각 학교당 학년별로 2개 학급의 학생을 표집하였다.

2005년 12월에 1,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0매를 회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처리에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48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표집된 연구 대상자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의 분포

구분	계		
	남	여	계
제주시	210(30.2%)	236(30.0%)	446(30.1%)
서귀포시	168(24.2%)	189(24.0%)	357(24.1%)
북제주군	169(24.3%)	190(24.2%)	359(24.3%)
남제주군	148(21.3%)	171(21.8%)	319(21.5%)
계	695(100%)	786(100%)	1,481(1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박종태(1994), 김선희(1997), 심희구(1999), 백경옥(2001) 등이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지도 교수의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가정 환경 요인 6문항, 학교생활 환경 요인 8문항, 사회 환경 요인 3문항, 흡연 지식 18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상세한 문항 구성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설문지 문항 구성표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일반적 특성	1.학년 2.성별 3.학교 위치 4.성격 5.스트레스 정도 6.한 달 용돈 7.흡연 유무	1, 2, 3, 4, 5, 6, 7	7
가정환경 요인	1.현재 살고 있는 보호자 2.가정 경제수준 3.부모와의 관계 4.부모의 양육태도 5.부모의 흡연 유무 6.부모 흡연의 영향	8, 9, 10, 11, 12, 13	6
학교생활 환경 요인	1.학교생활 만족도 2.학교 성적 3.선생님과의 관계 4.선생님의 흡연 모습 5.방과 후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6.방과 후 학습 시간 7.보내는 장소 8.친한 친구 중 흡연 학생 수	14, 15, 16, 17, 18, 19, 20, 21	8
사회환경 요인	1.거주지 2.유흥가 출입 횟수 3.영화나 TV의 흡연 장면	22, 23, 24	3
흡연 지식 척도	1. 긍정적 반응 2. 부정적 반응	1~15, 16*, 17*, 18*	18

*은 역채점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주제를 구상하여 설정하였고 문헌 및 선행 연구 고찰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수집된 자료와 논문 계획서에 따라 지도 교수의 조언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 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제작하고 배포·회수하였다.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1차 논문을 작성한 다음 4월에 수정을 거쳐 6월까지 보완하였다.

4. 자료 처리

흡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의 반응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고, 각 요인별 흡연 경험과 비흡연 경험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흡연 지식은 Likert Type의 3단계 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을 ‘그렇다’에 3점, ‘아니다’에 2점, ‘모르겠다’에 1점을 부여하여 계량화한 후 처리하였고, 부정적 문항 16, 17, 18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보여 준다. 또한 흡연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간의 차이와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

연구 대상자의 흡연 경험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학년, 성별, 지역, 성격, 스트레스 정도, 한 달 용돈 액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년에 따른 흡연 경험

학년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학년에 따른 흡연 경험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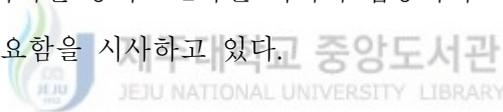
학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중1	458 (35.4)	32 (16.9)	490 (33.1)
중2	422 (32.7)	81 (42.9)	503 (34.0)
중3	412 (31.9)	76 (40.2)	488 (33.0)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5.600 (2)		.000***

***p<.001

<표 IV-1>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전체 흡연 경험율은 12.8%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남·여 공학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유일경(2000)의 연구 결과는 25.4%, 경기도 지역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실태를 조사한 최희곤(2001), 박현미(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21.6%, 28.7%로 조사되었으며,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길자(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28.2%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의 흡연 경험율과 차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흡연 경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설문지가 정직하고 성실한 답을 얻기 위해 익명으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흡연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일반적인 현상 때문에 학생들이 신빙성 있는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학년별 흡연 경험은 2학년(42.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학년(40.2%), 1학년(16.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학생의 흡연 시작 시기를 연구한 박현미(2003)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56.5%)때가 가장 많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 흡연의 시작 시기를 조사하지 않아 그 연관성을 비교할 수 없으나 중학교 2학년의 흡연 경험율이 높게 나타나는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흡연 경험이 가장 많은 시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흡연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

(%)

성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남	561 (43.4)	134 (70.9)	695 (46.9)
여	731 (56.6)	55 (29.1)	786 (53.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49.987(1)		.000***

*** $p < .001$

<표 IV-2>에서와 같이 남학생(70.9%)의 흡연 경험이 여학생(29.1%)의 흡연 경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지인순(1989), 박현미(2003)의 연구나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흡연자가 많다는 청소년의 흡연 실태를 시사하고 있다.

다. 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

(%)

지역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제주시	403 (31.2)	43 (22.8)	446 (30.1)
서귀포시	294 (22.8)	63 (33.3)	357 (24.1)
북제주군	313 (24.2)	46 (24.3)	359 (24.2)
남제주군	282 (21.8)	37 (19.6)	319 (21.5)
전체	1292	189	1481
$\chi^2(df)$	11.942(3)		.008**

** $p<.01$

<표 IV-3>에서와 같이 서귀포시 지역(33.3%) 학생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 지역(24.3%), 제주시 지역(22.8%), 남제주군 지역(19.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흡연율에서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농촌지역(2.5%)보다 도시지역(4.0%)이 높고, 여자 중학생

의 흡연율은 도시지역(2.7%)보다 농촌지역(6.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성별 흡연 실태를 조사하지 않아서 그 연관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 보편성을 보여 주고 있다.

라.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 (%)

성격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내성적	154 (11.9)	18 (9.5)	172 (11.6)
활달한 편	569 (44.0)	99 (52.4)	668 (45.1)
그저 그렇다(보통)	569 (44.0)	72 (38.1)	641 (43.3)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4.704(2)		.095

<표 IV-4>에서와 같이 내성적인 성격보다는 활달한 성격일수록 흡연 경험은 많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마.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

(%)

스트레스 정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대단히 많이 느낀다	82 (6.3)	22 (11.6)	104 (7.0)
많이 느낀다	393 (30.4)	77 (40.7)	470 (31.7)
조금 느낀다	652 (50.5)	74 (39.2)	726 (49.0)
거의 느끼지 않는다	165 (12.8)	16 (8.5)	181 (12.2)
전체	1292	189	1481
$\chi^2(df)$	18.919(3)		.000***

***p<.001

<표 IV-5>에서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52.3%)는 학생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조금 느낀다’(39.2%), ‘거의 느끼지 않는다’(8.5%) 순으로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은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건 조성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흡연을 선택하여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놀이 문화 제공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바.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경험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경험 (%)

한 달 용돈 액수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5천원 미만~1만원 정도	301 (23.3)	38 (20.1)	339 (22.9)
1만원~3만원 정도	338 (26.2)	49 (25.9)	387 (26.1)
3만~5만원 이상	178 (13.8)	44 (23.3)	222 (15.0)
필요시 타서 쓴다	475 (36.8)	58 (30.7)	533 (36.0)
전체	1292	189	1481
$\chi^2(df)$	12.363(3) .006**		

**p<.01

<표 IV-6>에서와 같이 ‘필요시 타서 쓴다’(30.7%)는 학생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만원~3만원 정도’(25.9%), ‘3만원~5만원 정도’(23.3%), ‘5천원 미만~1만원 정도’(20.1%)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계온(1992), 지부용(2002), 김태숙(2003) 등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용돈 액수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흡연 관련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

연구 대상자의 흡연 경험과 가정 환경, 학교생활 환경,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여부

가정 환경 요인(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 경제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흡연 여부, 부모 흡연의 영향)과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

부모와의 동거 여부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아버지, 어머니 계심	1121 (86.8)	151 (79.9)	1272 (85.9)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심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심	171 (13.2)	38 (20.1)	209 (14.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6.421 (1)		.011*

*p<.05



<표 IV-7>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신 학생(79.9%)의 흡연 경험이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시거나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학생(20.1%)에 비해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심은희(1988), 남옥희(1994)의 연구에서 결손 가정의 청소년이 정상 가정의 청소년보다 1.5배 흡연율이 높다는 연구 보고와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대상 학생 중 결손 가정의 학생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판단된다.

2) 가정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

가정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가정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 (%)

생활 수준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부유한 편	103 (8.0)	17 (9.0)	120 (8.1)
보통	1042 (80.7)	140 (74.1)	1182 (79.8)
빈곤하다	147 (11.4)	32 (16.9)	179 (12.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5.313(2) .070		

<표 IV-8>에서와 같이 가정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흡연 경험은 많이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3)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부모와의 관계와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

부모와의 관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긍정적이다	826 (63.9)	14 (7.4)	840 (56.7)
보통이다	402 (31.1)	80 (42.3)	482 (32.5)
부정적이다	64 (5.0)	95 (50.3)	159 (10.8)
전체	1292	189	1481
$\chi^2(df)$	13.208(2) .001***		

***p<.001

<표 IV-9>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학생 (50.3%)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42.3%), '긍정적이다'(7.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지부용(200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흡

연 경험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아 반사회적 성향을 띠면서 문제 행동으로 청소년 비행의 첫 단계인 흡연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흡연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와의 대화 부족, 세대 차이 등으로 인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 불화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표현 등은 흡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

부모의 양육 태도와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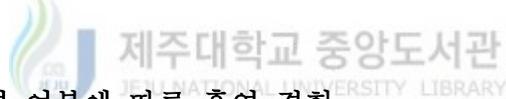
<표 IV-10>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 (%)

부모의 양육 태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민주적이다	848 (65.6)	17 (9.0)	865 (58.4)
권위적이다	277 (21.4)	61 (32.3)	338 (22.8)
독재적이다	74 (5.7)	91 (48.1)	165 (11.1)
방임적이다	93 (7.2)	20 (10.6)	113 (7.6)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1.773(3)		.000***

***p<.001

<표 IV-10>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독재적이다'라는 학생 (48.1%)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권위적이다'(32.3%), '방임적이다'(10.6%), '민주적이다'(9.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유영식(1984), 지인순(1989), 송연희(1997)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부모의 양육 방법이 독재적일수록 자녀들의 흡연 경험은 많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가정 환경은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자녀를 가정의 보살핌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녀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여 거리를 방황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래집단에서 지지와 안정을 얻고자 흡연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이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민주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 청소년의 흡연을 억제하는 바람직한 교육 방법임을 시사하고 있다.



5)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 (%)

부모의 흡연 여부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부모 모두 피운다, 어머니만 피운다	46 (3.6)	14 (7.4)	60 (4.1)
아버지만 피운다	733 (56.7)	103 (54.5)	836 (56.4)
부모 모두 안 피운다	513 (39.7)	72 (38.1)	585 (39.5)
전체	1292	189	1481
$\chi^2(df)$	6.278(2)		.043*

* $p<.05$

<표 IV-11>에서와 같이 ‘아버지만 피운다’는 학생(54.5%)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 모두 안 피운다’(38.1%), ‘부모 모두 피우거나 어머니만 피운다’(7.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연구한 Murry(1985)가 소년들은 아버지가 흡연하는 경우 흡연하는 경향이 높으며 소녀들은 어머니가 흡연하는 경우 흡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이는 부모의 흡연이 자녀의 흡연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며, 가정에서 부모가 술선수범하여 금연하거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자녀의 흡연예방에 도움을 줄을 시사하고 있다.

6)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경험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경험 (%)

부모의 흡연 영향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많은 영향을 준다	342 (26.5)	47 (24.9)	389 (26.3)
조금 영향을 준다	308 (23.8)	46 (24.3)	354 (23.9)
그저 그렇다	209 (16.2)	46 (24.3)	255 (17.2)
영향을 주지 않는다	99 (7.7)	13 (6.9)	112 (7.6)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34 (25.9)	37 (19.6)	371 (25.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9.284(4)	.054

<표 IV-12>에서와 같이 부모의 흡연은 많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나.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환경 요인(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성적, 선생님과 관계, 선생님의 흡연 모습,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학습 시간, 방과 후 보내는 장소, 흡연하는 친구 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IV-13>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경험

(%)

학교생활 만족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매우 만족한다	139 (10.8)	20 (10.6)	159 (10.7)
약간 만족한다	451 (34.9)	23 (12.2)	474 (32.0)
그저 그렇다	486 (37.6)	65 (34.4)	551 (37.2)
약간 불만이다	137 (10.6)	57 (30.2)	194 (13.1)
매우 불만이다	79 (6.1)	24 (12.7)	103 (7.0)
전체	1292	189	1481
$\chi^2(df)$		7.433(4)	.115

<표 IV-13>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흡연 경험은 많이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2)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

학교 성적과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

(%)

학교 성적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매우 잘 한다	64 (5.0)	10 (5.3)	74 (5.0)
잘하는 편이다	259 (20.0)	29 (15.3)	288 (19.4)
중간이다	590 (45.7)	73 (38.6)	663 (44.8)
낮은 편이다	297 (23.0)	48 (25.4)	345 (23.3)
매우 낮다	82 (6.3)	29 (15.3)	111 (7.5)
전체	1292	189	1481
χ^2 (df)	21.957(4)		.000***

***p<.001

<표 IV-14>에서와 같이 학교 성적이 ‘중간이다’라는 학생(38.6%)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25.4%), ‘잘하는 편이다’, ‘매우 낮다’(각각 15.3%), ‘매우 잘 한다’(5.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심은희(1988), 지인순(1989), 김선희(1997), 지부용(2002) 등의 연구와 유사하여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 경험은 많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은 성적 지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학업 성적과 흡연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 (%)

선생님과의 관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매우 좋은 편이다	121(9.4)	18(9.5)	139(9.4)
약간 좋은 편이다	369(28.6)	11(5.8)	380(25.7)
그저 그렇다	696(53.9)	92(48.7)	788(53.2)
약간 안 좋은 편이다	57(4.4)	44(23.3)	101(6.8)
매우 안 좋은 편이다	49(3.8)	24(12.7)	73(4.9)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9.731(4)		.000***

***p<.001



<표 IV-15>에서와 같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렇다’는 학생(48.7%)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간 안 좋은 편이다’(23.3%), ‘매우 안 좋은 편이다’(12.7%), ‘매우 좋은 편이다’(9.5%), ‘약간 좋은 편이다’(5.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것은 장영희(1995), 지부용(2002)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수업량과 업무량이 과중한 현 교육제도 아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교사는 상담자로서 또는 친근한 안내자로서 학생과의 인간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선생님의 흡연 모습에 따른 흡연 경험

선생님이 흡연하는 모습에 따른 흡연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선생님의 흡연 모습에 따른 흡연 경험 (%)

선생님의 흡연 모습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흡연 충동을 느낀다	26(2.0)	92(48.7)	118(8.0)
아무 생각이 없다	377(29.2)	12(6.3)	389(26.2)
금연했으면 좋겠다	889(68.8)	85(45.0)	974(65.8)
전체	1292	189	1481
χ^2 (df)	46.122(2)		.000***

***p<.001

<표 IV-16>에서와 같이 선생님이 흡연하는 모습에 ‘흡연 충동을 느낀다’는 학생(48.5%)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연했으면 좋겠다’(45.0%), ‘아무 생각이 없다’(6.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에 흡연 충동을 느낄수록 흡연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의 본보기가 교사인 만큼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5)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바로 집에 간다	447(34.6)	43(22.8)	490(33.1)
1시간 이내	399(30.9)	49(25.9)	448(30.2)
1~2시간 정도	281(21.7)	42(22.2)	323(21.8)
2시간 이상	165(12.8)	55(29.1)	220(14.9)
전체	1292	189	1481
$\chi^2(df)$	37.947(3)		.000***

***p<.001

<표 IV-17>에서와 같이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학생(29.1%)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시간 이내’(25.9%), ‘바로 집에 간다’(22.8%), ‘1~2시간 정도’(22.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장영미(1991), 이영빈(1995), 지부용(2002)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방과 후 어울리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호기심 또는 교우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것은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양이 흡연 행위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따른 흡연 경험 (%)

방과 후 학습 시간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1시간 이내	501(38.8)	89(47.1)	590(39.8)
1~2시간 이내	377(29.2)	51(27.0)	428(28.9)
2~3시간 정도	213(16.5)	27(14.3)	240(16.2)
3시간 이상	201(15.6)	22(11.6)	223(15.0)
전체	1292	189	1481
$\chi^2(df)$	5.308(3)		.151

<표 IV-18>에서와 같이 방과 후 학습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흡연 경험은 많이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7) 방과 후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

방과 후 주로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방과 후 주로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 (%)

방과 후 지내는 장소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학원	315(24.3)	36(19.1)	351(23.7)
독서실, 기타	130(10.1)	33(17.5)	163(11.0)
내 집	767(59.4)	91(48.1)	858(57.3)
PC방	80(6.2)	29(15.3)	109(7.4)
전체	1292	189	1481
$\chi^2(df)$	32.524(3)		.000***

***p<.001

<표 IV-19>에서와 같이 방과 후 주로 지내는 장소가 ‘내 집’인 학생 (48.1%)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원’(19.1%), ‘독서실, 기타’(17.5%), ‘PC방’(15.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방과 후 흡연 경험이 가장 많은 장소로 지적하고 있는 자기 집은 맞벌이 부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부모의 늦은 귀가와 사회적·가족적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곳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부모들은 방과 후 집에 자주 전화걸기, 일찍 귀가하기, 귀가 후 자녀의 공부방 둘러보기, 자녀와 대화하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8)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 (%)

흡연하는 친구 수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전혀 없다	1196(92.6)	71(37.6)	1267(85.6)
2명 이하~5명이상	96(7.4)	118(62.4)	214(14.4)
전체	1292	189	1481
$\chi^2(df)$		5.308(3)	.151

<표 IV-20>에서와 같이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다.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

흡연 경험과 사회 환경 요인(거주지, 유흥가 출입 횟수, 영화나 TV 드라마 흡연 장면)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지에 따른 흡연 경험

현재 거주지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거주지에 따른 흡연 경험 (%)

거주지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969(75.0)	152(80.4)	1121(75.7)
그 외 기타 지역	323(25.0)	37(19.6)	360(24.3)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636(1)		.104

<표 IV-21>에서와 같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인 학생의 흡연 경험이 그 외 기타 지역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2)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경험

일주일에 유흥가(오락실, 노래방, 카페 등)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경험 (%)

유흥가 출입 횟수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64(28.2)	30(15.9)	394(26.6)
1~2회	791(61.2)	117(61.9)	908(61.3)
3회 이상	137(10.6)	42(22.2)	179(12.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27.805(2)		.000***

***p<.001

<표 IV-22>에서와 같이 일주일간 유흥가 출입 횟수가 '1~2회'인 학생 (61.9%)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회 이상'(22.2%), '한 번도 간 적이 없다'(15.9%)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일주일간 유흥가 출입 횟수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것은 장영미(1991), 이은영(1992), 송연희(1997)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유흥가 출입과 흡연이 연관성이 큼을 보여 줌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유흥가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 지속적인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에 따른 흡연 경험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하는 장면에 따른 흡연 경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에 따른 흡연 경험 (%)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	흡연 경험		전체
	무	유	
매우 멋있어 보인다	26(2.0)	12(6.3)	38(2.6)
약간 멋있어 보인다	91(7.0)	30(15.9)	121(8.2)
그저 그렇다	671(51.9)	117(61.9)	788(53.2)
약간 나쁘게 보인다	240(18.6)	11(5.8)	251(16.9)
매우 나쁘게 보인다	264(20.4)	19(10.1)	283(19.1)
전체	1292	189	1481
$\chi^2(df)$	56.027(4)	.000***	

***p<.001

<표 IV-23>에서와 같이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하는 장면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는 학생(61.9%)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간 멋있어 보인다’(15.9%), ‘매우 나쁘게 보인다’(10.1%), ‘매우 멋있어 보인다’(6.3%), ‘약간 나쁘게 보인다’(5.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멋있게 바라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것은 지인순(1989), 장영미(1991), 송연희(1997) 등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흡연 욕구를 부추기는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제재하는 강력한 국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학년, 성별, 지역, 성격, 스트레스 정도, 한 달 용돈 액수)과 가정 환경 요인, 학교 생활 환경 요인, 사회 환경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일반적 특성(학년, 성별, 지역, 성격, 스트레스 정도,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일반적 특성		N	M	SD	F	p
학년	중 1	490	46.09	5.19	10.874	.000***
	중 2	503	46.80	4.98		
	중 3	488	47.53	4.30		
성별	남	695	46.51	5.27	5.040	.025*
	여	786	47.08	4.47		
지역	제주시	446	46.90	4.96	.334	.801
	서귀포시	357	46.67	4.80		
	북제주군	359	46.95	4.75		
	남제주군	319	46.68	4.97		
성격	내성적이다	172	47.67	4.51	3.315	.037*
	활달한 편이다	668	46.79	4.61		
	그저 그렇다	641	46.59	5.20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낀다	104	46.19	6.20	2.871	.035*
	많이 느낀다	470	47.21	4.18		
	조금느낀다	726	46.81	4.79		
	거의 느끼지 않는다	181	46.12	5.82		
한 달 용돈	5천원 미만~1만원 정도	339	46.40	5.26	1.345	.258
	1만원~3만원 정도	387	47.10	4.46		
	3만~5만원 이상	222	46.72	5.24		
	필요시 타서 쓴다	533	46.89	4.73		

***p<.001, *p<.05

<표 IV-24>에서와 같이 학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3학년(47.53)이 가장 높고 이어서 2학년(46.80), 1학년(46.09)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의 학년별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흡연 경험은 2학년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흡연 지식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여학생(47.08)이 남학생(46.5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2>의 성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흡연 경험이 낮은 여학생의 흡연 지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흡연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이를 <표 IV-3>의 지역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흡연 경험이 가장 높은 서귀포 지역 학생이 흡연 지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내성적’인 학생(47.67)이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는 학생(46.59)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4>의 성격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내성적인 성격일수록 흡연 경험은 낮은 반면 흡연 지식은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많이 느낀다’는 학생(47.2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학생(46.12)이 가장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5>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 특성의 성별, 성격, 지역별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나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어린 시절부터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 과정에 흡연 예방교육을 교과내용으로 포함시켜 가르쳐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가정 환경 요인(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 경제 생활수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흡연 여부, 부모 흡연의 영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가정 환경		N	M	SD	F	p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버지, 어머니 계심	1,272	46.94	4.75	6.726	.010*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심	209	46.00	5.49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 계심					
가정 생활수준	부유한 편이다	120	46.88	5.03	.416	.659
	보통이다	1,182	46.85	4.83		
	빈곤하다	179	46.50	5.05		
부모와의 관계	긍정적이다	921	47.13	4.59	5.464	.004**
	보통이다	482	46.25	5.14		
	부정적이다	78	46.41	5.99		
부모의 양육 태도	민주적이다	939	47.20	4.43	6.383	.000***
	권위적이다	338	46.28	5.26		
	독재적이다	91	45.46	5.67		
	방임적이다	113	46.19	6.00		
부모의 흡연 유무	부모 모두 피운다	60	45.52	5.67	2.348	.096
	아버지만(어머니만) 피운다	836	46.92	4.58		
	부모 모두 안 피운다	585	46.78	5.16		
부모의 흡연 영향	많은 영향을 준다	389	47.58	4.17	4.273	.002**
	조금 영향을 준다	354	46.80	4.56		
	그저 그렇다	255	46.45	4.67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2	46.95	5.39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371	46.21	5.66		

*p<.05, **p<.01, ***p<.001

<표 IV-25>에서와 같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계신 학생(46.94)이 아버지(또는 어머니)만 계시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 계신 학생(46.00)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7>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학생에게서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가정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 이를 <표 IV-8>의 가정 경제 생활수준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47.13)이 가장 높고 보통인 학생(46.25)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9>의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흡연 경험은 가장 낮고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인 학생(47.20)이 가장 높고 '독재적'인 학생(45.46)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0>의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일수록 흡연 경험은 가장 낮은 반면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흡연 여부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부모의 흡연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학생(47.58)이 가장 높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학생

(46.21)이 가장 낮게 나타나 부모의 흡연 영향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2>의 부모의 흡연 영향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부모의 흡연은 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에 모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가정 환경 요인의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나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금연에 솔선수범하는 생활과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교육이 흡연예방의 기초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의 흡연 모습,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학습 시간, 방과 후 보내는 장소, 흡연하는 친구 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		N	M	SD	F	p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62	47.36	5.92	2.979	.018*
	약간 만족한다	508	47.18	4.35		
	그저 그렇다	551	46.67	4.84		
	약간 불만이다	161	46.01	4.21		
	매우 불만이다	99	46.10	6.25		
학교 성적	매우 잘한다	74	46.22	7.09	10.049	.000***
	잘하는 편이다	288	47.67	4.39		
	중간이다	663	47.22	4.21		
	낮은 편이다	345	45.98	5.24		
	매우 낮다	111	45.05	5.90		
선생님과의 관계	매우 좋은 편이다	139	46.76	5.56	5.196	.000***
	약간 좋은 편이다	413	47.54	4.01		
	그저 그렇다	788	46.60	4.87		
	약간 안 좋은 편이다	68	46.87	5.15		
	매우 안 좋은 편이다	73	45.03	6.78		
선생님의 흡연 모습	흡연 충동을 느낀다	38	44.11	6.34	26.865	.000***
	아무 생각이 없다	469	45.71	5.93		
	금연했으면 좋겠다	974	47.44	4.05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바로 집에 간다	490	46.77	5.29	1.938	.121
	1시간 이내	448	47.04	4.78		
	1~2시간 정도	323	47.00	4.44		
	2시간 이상	220	46.14	5.23		
방과 후 학습 시간	1시간 이내	590	46.51	4.95	1.548	.200
	1~2시간 이내	428	46.93	4.90		
	2~3시간 정도	240	47.27	4.71		
	3시간 이상	223	46.87	5.60		
방과 후 지내는 장소	학원	351	47.21	4.27	3.393	.017*
	독서실, 기타	163	46.29	5.36		
	집	858	46.89	4.87		
흡연하는 친구 수	PC방	109	45.70	5.68	5.198	.023*
	전혀 없다	1314	46.91	4.75		
	2명 이하~5명 이상	167	46.00	5.69		

*p<.05, ***p<.001

<표 IV-26>에서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학생(47.36)이 가장 높고 ‘약간 불만’인 학생(46.01)이 가장 낮아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3>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흡연 경험이 높은 반면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잘하는 편’인 학생(47.67)이 가장 높고 ‘매우 낮다’는 학생(45.05)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4>의 학교 성적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흡연 경험은 낮은 반면 흡연 지식은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약간 좋은 편’인 학생(47.54)이 가장 높고 ‘매우 안 좋은 편’인 학생(45.03)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5>의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약간 좋은 편일 때 흡연 경험이 가장 낮은 반면에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생님의 흡연 모습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금연했으면 좋겠다’는 학생(47.44)이 가장 높고 ‘흡연 충동을 느낀다’는 학생(44.11)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6>의 선생님의 흡연 모습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에 흡연 충동을 느낄 경우 흡연 경험이 많은 반면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났다.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방과 후 학습 시간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방과 후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학원’인 학생(47.21), 이 가장 높고 ‘PC방’인 학생(45.70)이 가장 낮게 나타나 방과 후 학습이 지속 되는 장소가 있을수록 흡연 지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19>의 방과 후 지내는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자기 집에서 지내는 학생의 흡연 경험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 학원에서 지내는 학생의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46.91)이 가장 높고 ‘2명 이하~5명 이상’인 학생(46.00)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20>의 흡연하는 친구 수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흡연하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흡연 경험이 가장 많은 반면 흡연 지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교생활 환경 요인 가운데 학교 성적, 선생님과의 관계, 선생님의 흡연 모습에 대한 인식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과 지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인성개발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학교 교육목표를 전환하고, 교사에 대한 흡연예방 관련 연수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효과적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금연 교육과 예방교육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시적인 학교교육 풍토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지식이 사회 환경 요인(거주지, 유흥가 출입 횟수,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지식

사회 환경 요인		N	M	SD	F	p
거주 장소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1121	46.83	4.81	.104	.747
	그 외 기타 지역	360	46.74	5.07		
유흥가 출입 횟수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94	47.24	4.92	4.086	.017*
	1~2회	908	46.78	4.72		
	3회 이상	179	45.99	5.39		
영화나 TV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	매우 멋있어 보인다	38	44.42	6.67	2.876	.022*
	약간 멋있어 보인다	121	46.36	5.18		
	그저 그렇다	788	46.84	4.66		
	약간 나쁘게 보인다	251	46.99	4.44		
	매우 나쁘게 보인다	283	47.08	5.31		

*p<.05

<표 IV-26>에서와 같이 거주 장소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이를 <표 IV-21>의 거주 장소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아도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학생(47.24)이 가장 높고 '3회 이상' 간 적이 있는 학생(45.99)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22>의 유흥가 출입 횟수에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우 흡연 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난 반면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매우 나쁘게 보인다'라는 학생(47.08)이 가장 높고 '매우 멋있어 보인다'는 학생(44.42)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를 <표 IV-23>의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인식하는 데 따른 흡연 경험과 비교해 보면,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나쁘게 바라볼수록 흡연 경험은 가장 적게 나타난 반면 흡연 지식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사회 환경 요인 가운데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와 영화나 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인식에서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은 낮게 나타나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흡연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의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계시킨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법적 제재의 강화와 함께 흡연 해악에 대한 지식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정부가 앞장섬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 흡연 경험에 대한 흡연 지식

구 분		N	M	SD	F	p
흡연 경험	무	1296	46.94	4.85	7.664	.006**
	유	189	45.89	4.90		

**p<.01

<표 IV-28>에서와 같이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 차이를 보면, 흡연 경험자의 흡연 지식(45.89)이 비흡연자의 흡연 지식(46.94)보다 1.05나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흡연 지식이 높으면 흡연 경험은 낮게 나타난 김선희(1997), 정지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흡연 지식이 흡연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흡연 행동 감소의 지름길임을 시사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흡연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생활지도의 핵심 과제라는 전제 아래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정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은 어떠한가?
- 둘째, 흡연 경험과 가정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넷째, 흡연 경험과 사회 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다섯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지도 교수의 자문을 얻어 연구 도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가정 환경 요인 6문항, 학교생활 환경 요인 8문항, 사회 환경 요인 3문항, 흡연 지식 18문항 등 총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주도내 소재 8개 중학교 1, 2, 3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1,481명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고 SPSS 11.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을 보면 연구 대상자의 흡연 경험율은 12.8%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p<.001$), 성별로는 남학생

($p < .001$),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p < .01$)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p < .001$), 한 달 용돈 액수가 많은 학생($p < .01$)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계신 학생($p < .05$),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학생($p < .001$), 부모의 양육 태도가 독재적·권위적인 학생($p < .001$), 아버지만 담배를 피우는 학생($p < .05$)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생활수준과 부모의 흡연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을 보면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p < .001$),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p < .001$), 선생님의 흡연하는 모습에서 흡연 충동을 느끼는 학생($p < .001$),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학생($p < .001$), 방과 후 주로 지내는 장소가 자기 집인 학생($p < .001$)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하루에 학습하는 시간, 흡연하는 친구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을 보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유흥가를 출입하는 학생($p < .001$),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멋있게 바라보는 학생($p < .001$)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학년이 높은 학생($p < .001$),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p < .05$)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p < .05$)과 내성적인 학생($p < .05$)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이 적게 나타났지만 거주 지역 및 한 달 용돈 액수에 따른 흡연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계신 학생($p < .05$), 부모의 흡연 영향을 많이 받는 학

생($p < .01$)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학생($p < .01$), 부모의 양육 태도가 민주적인 학생($p < .001$)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은 적게 나타났지만 부모의 흡연 유무와 가정 생활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곱째,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p < .05$),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p < .001$),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학생($p < .001$), 선생님의 흡연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p < .001$)일수록 흡연 지식은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은 적게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에 학원에서 지내는 학생($p < .05$),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p < .05$)일수록 흡연 지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방과 후 학습 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덟째, 사회 환경 요인에 따른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과의 관계를 보면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가 적은 학생($p < .05$), 영화나 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을 나쁘게 바라보는 학생($p < .05$)일수록 흡연 지식은 높은 반면 흡연 경험이 적게 나타났지만, 거주 장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홉째, 흡연 경험에 따른 흡연 지식을 보면 흡연 경험자의 흡연 지식(45.89)이 비흡연자의 흡연 지식(46.94)보다 1.05나 낮게 나타났다($p < .01$).

2.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중학생의 흡연 경험율은 12.8%로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2학년 학생, 남학생, 서귀

포 지역 학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 한 달 용돈 액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학교·급별에 따라 적합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일선 학교 교사를 위한 금연전문교육 연수를 통하여 모든 교사가 교과지도와 연계한 금연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에 있어서 결손가정보다 정상적인 가정의 학생,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학생, 부모의 양육 태도가 독재적·권위적인 학생,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흡연하지 않는 모습, 자녀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담긴 민주적인 양육 태도, 흡연의 해악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 환경 요인에 있어서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 교사의 흡연 모습에서 흡연 충동을 느끼는 학생,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은 학생, 방과 후 학습 시간이 적은 학생, 방과 후 주로 집에서 지내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과 지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인성개발을 위한 내용 중심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전환하고, 학생상담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며, 또래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교우관계를 유도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 환경 요인에 있어서 유흥업소 출입 횟수가 많은 학생,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 장면을 멋있게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흡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

중매체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국가사회의 전폭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지원·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성격 및 지역, 가정 환경 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요인 중 학교 성적과 교사와의 관계 및 교사의 흡연 모습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 요인 중 일주일 간 유흥가 출입 횟수와 영화·TV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흡연 경험이 많을수록 흡연 지식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적·자율적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할 줄 아는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흡연예방 연구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과정 속에 흡연 폐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흡연에 관련된 흡연 예방교육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각 학교·급별에 알맞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대운(1996). **인문계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와 학교생활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 고시(1992). **제6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중학교 교육과정**. (주) 대한교과서.
- 교육부 고시(1997).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77-12호) 중학교 교육과정 {별책 3}**. (주) 대한교과서.
- 김상영(1995). **농어촌과 중소도시 국민학교 6학년생의 흡연 실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이(1989). **청소년 약물 남용 상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선희(1997).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숙(2003). **청소년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1989). **청소년 약물 문제**. 중앙의대지. 34.
- 김현미(2002). **청소년 흡연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란(1994).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생태학적 개입**.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승구(1992). **배꼽으로 나오는 담배 연기**. 서울: 도서출판 365일.
- 권연순(1994). **담배 : 현대인을 위한 금연백과**. 서울: 동지.
- 남재봉(1992).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옥희(1994). **여고생 흡연집단과 비흡연 집단의 자아개념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영순(1991). **여고생의 흡연에 따른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윤(1998).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 연구. 제28호. 한국청소년연구원. 26.

- 박종태(1994).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분석**.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현미(2003). **경기도 지역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관련 요인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06).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42.
- 백경옥(2001). **부산지역 중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일 외 5인(1988). **전국 남자 중 ·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 한국역학회지. 제10권 2호.
- 신길자(2001).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 행동과 관련 요인**.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은희(1988). **서울특별시 여고생의 흡연 실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희구(1999).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 실태와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2000).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연희(1997).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옥, 최혜영(2000). **초등학생의 흡연 지식, 흡연 태도와 흡연 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이성진(1994). **교육 심리학 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영(1992). **흡연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계운(1992). **여고생의 흡연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흡연 지식, 흡연 태도,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빈(1995). **중·소도시 중학생의 흡연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익수(1993). **청소년 흡연 행동**. 서울: 청소년상담원.
- 임주영(1984).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대책**.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그 선도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

-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만우(1983). **청소년 범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19집.
- 유일경(2000).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학교생활, 가정환경, 흡연 지식 간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영식(1984). **비행 청소년의 담배 흡연 상관 변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23(3). 274-288.
- 윤덕중(1984). **범죄와 소년 비행학**. 서울: 법문사.
- 윤영옥(1998). **시내 일부 중학교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경아, 장주동(2002). **일부 지역 청소년 등의 흡연 실태**.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희(1985).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총론. 4-1.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영미(1991).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행위와 관련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희(1995). **청소년 음주, 흡연과 학교생활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부용(2002). **강릉시 중학교 여학생의 흡연 실태 및 관련 요인 조사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인순(1989). **중학생의 흡연 수용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선하(2001).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 금연지도자 교육 교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31-40.
- 진희숙(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왕기(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 정지연(2002). **일부 중학생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태훈(1988). **여성에서의 흡연**. 흡연과 건강. 대한결핵협회. 64-73.
- 제주도교육청(2006).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2006 학교보건 기본 방향**. 12-15.

- 최순남(1999).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정훈(1987). **심리학**. 서울: 법문사.
- 최희곤(2001). **청소년 흡연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0). **흡연과 건강**. 85.
-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5). **2005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흡연 실태조사**. 4-9.
- 황라일(1998). **흡연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 Banks, M. H., Bewley, B. R., & Bland, J. M. (1981). *Adolescent attitudes to smoking their Influence 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24(1), 39-44.
- Murry, M. (1984). *Relativ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smoking behavior and attitude*. Journal of Eprdemiology Community Health, 36, 136-174.
- Spielberger, C.D. etal(1983). *On the revolution between family smoking, habit and the smoking behavior of college of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32(1).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moking Experience and the Knowledge on Smoking

Song, Keum-Sook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Juvenile smoking can cause various educational problems and become considered as a severe social problem, but there is no systematic effort to prevent juvenile smoking in schools.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which can influence juvenile smo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moking,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smoking prevention program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 How many students have smoking experiences?

Second,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s and students' family background?

Third,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s and school-related variables?

Fourth,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s and social environment?

Fifth, W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moking?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randomly selected 1,481 studen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and distributes a questionnaire, and analyzed the data using SPSS 11.0 for Window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 of students who have smoking experiences is 12.8%, and gender, living area, the degree of stress, and monthly allowance influence on the juvenile smoking. However, it is found that students' character do not influence on smoking experiences.

Second, in the area of family background, the ratio of juvenile smoking is higher when parents are alive, the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are negative, one's parents are autocratic and authoritarian, and one's father is smoking. However, it found that economic status did not influence on the smoking experience.

Third, in the area of school-related variables, the ratio of juvenile smoking is higher when the relations with teachers are bad, one see often the scene teachers are smoking, and one spends more time with friends after school is over. However, it found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schools, and the number of friends who were smoking did not influence on the smoking experience.

Fourth, in the area of social environment, the ratio of juvenile smoking is higher when students go often to entertainment centers, and one think actors who are smoking in dramas or films to be cool.

Fifth, the universal character of gender, living area and personality, the area of family background, relationship with one's parents and one's parents bringing attitude, in the area of school-related variables, the ratio of scholastic attainments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recognition of the scene teachers are smoking, in the area of social environment, students often to entertainment centers and in the recognition of the scene actors who are smoking in dramas or movies the students have the more smoking experience, the lower smoking knowledge so we know it have minus mutual relation.

Finally, it can be said that juvenile smoking experiences are influenced by family background, school-related variables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higher the smoking experiences, the lower the knowledge of smoking. Thus, to solve the juvenile smoking problems,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provide smoking prevention programs. Also, the program should be taught in the regular curriculum.

<부 록>

『중학생의 흡연 경험과 흡연 지식 간의 관계』에 관한 설문지

부탁의 말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제주도내 중학생의 흡연 실태 조사 및 관련 요인과 흡연 지식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고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설문 결과는 집단으로 통계 처리될 것이므로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성의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5년 1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송금숙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의 ___란에 V 표 하십시오.

1. 학생은 현재 몇 학년입니까?

- 1) 중 1 2) 중 2 3) 중 3

2.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 2) 여

3. 현재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위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 1) 제주시 지역 2) 서귀포시 지역
 3) 북제주군 지역 4) 남제주군 지역

4. 학생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1) 내성적이다. 2) 활발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보통이다)

5. 보통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4)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

6. 학생의 한달 용돈(교통비 제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5천원 미만 2) 5천원~1만원 정도
 3) 1만원~3만원 정도 4) 3만~5만원 정도
 5) 5만원 이상 6) 필요할 때 타서 쓴다.

7. 학생은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2) 현재 계속 피우고 있다.
 3) 한 번이상 피워봤지만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다음은 학생의 가정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의
_란에 V 표 하십시오.

8. 현재 학생과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 1) 아버지, 어머니 계심 2) 아버지만 계심
 3) 어머니만 계심 4)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안 계심

9. 가정의 생활 수준은 어떠합니까?

- 1) 꽤 부유한 편이다. 2) 부유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빈곤하다. 5) 아주 빈곤하다.

10. 학생은 부모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매우 긍정적이다. 2) 긍정적이다.
 3) 보통이다. 4) 부정적이다. 5) 매우 부정적이다.

11. 부모님께서 학생을 양육하는 방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민주적이다. 2) 권위적이다.
 3) 독재적이다. 4) 방임적이다.(신경쓰지 않음)

12. 부모님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 1) 부모님 모두 피우신다. 2) 아버지만 피우신다.
 3) 어머니만 피우신다. 4) 부모님 모두 안 피우신다.

13. 부모님의 흡연이 자신의 흡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1) 많은 영향을 준다. 2) 조금 영향을 준다.
 3) 그저 그렇다. 4)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 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의 ___란에 V 표 하십시오.

14.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2) 약간 만족한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불만이다.
 5) 매우 불만이다.

15. 학생의 학교에서의 성적은 어느 수준입니까?

- 1) 매우 잘 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중간이다. 4) 낮은 편이다.
 5) 매우 낮다.

16. 학생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좋은 편이다. 2) 약간 좋은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안 좋은 편이다.
 5) 매우 안 좋은 편이다.

17. 학교에서 선생님이 흡연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 1) 흡연 충동을 느낀다. 2) 아무 생각이 없다.
 3) 금연했으면 좋겠다.

18. 학교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 1) 바로 집에 간다. 2) 1시간 이내
 3) 1~2시간 정도 4) 2시간 이상

19. 방과 후의 학습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 1) 1시간 이내 2) 1~2시간 정도
 3) 2~3시간 정도 4) 3시간 이상

20. 방과 후 주로 어디서 보냅니까?

- 1) 학원 2) 독서실 3) 집에서
 4) PC방 5) 기타()

21. 학생의 친한 친구들 중에 흡연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1) 전혀 없다. 2) 2명 이하
 3) 2~4명 4) 5명 이상

다음은 학생의 사회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의
_란에 V 표 하십시오.



22.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시장 또는 상가 2) 유흥가 및 식당
 3) 학교 및 학원가 4) 주택가, 연립 및 아파트 단지
 5) 해변가 6) 기타

23. 유흥가(오락실, 노래방, 카페)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갑니까?

- 1)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2) 1~2회
 3) 3~4회 4) 거의 매일

24. 영화나 TV 드라마 속의 흡연하는 장면을 보면 어떠합니까?

- 1) 매우 멋있어 보인다. 2) 약간 멋있어 보인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나쁘게 보인다.
 5) 매우 나쁘게 보인다.

다음은 흡연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되는 해당란에 V 표 하십시오.

항 목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담배를 피우면 가래가 많이 생긴다.			
2.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3.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암을 많이 일으킨다.			
4.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5.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6.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에 해롭다.			
7. 담배를 일찍 시작할수록 건강에 더 해롭다.			
8. 담배를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자주 아프게 한다.			
9. 담배를 피우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진다.			
10. 담배를 끊고 싶어도 끊기 힘든 이유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11. 담배를 피우면 이가 누렇게 변하고 입에서 냄새가 난다.			
12.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			
13. 담배를 피우면 심장 기능이 약해진다.			
14.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는 건강에 해로운 담배 성분이다.			
15.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16. 어른은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다.			
17. 담배를 피워도 운동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18. 담배를 조금씩 피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다.			

☺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